

The 20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 상 식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Tel. 02-774-9702~7 Fax. 02-774-9724
E-mail. koreaywca@ywca.or.kr www.ywca.or.kr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 운동이념

- ◆ **Young 청년운동**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사고와 청년성을 갖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운동체
- ◆ **Women 여성운동**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살아있는 운동체
- ◆ **Christian 기독교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 운동체
- ◆ **Association 회원운동**
전국에 있는 회원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민주적인 운동체
- ◆ **국제운동**
세계YWCA 회원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운동체

한국YWCA는 1922년 창립된 이후 여성지도력 양성을 통하여 한국의 초기 여성운동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학계, 교계, 정계, 전문직 등 각 영역에 여성지도력을 고루 배출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21세기를 맞아 한국YWCA는 여성지도력의 산실로서 아시아 지역 여성지도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 순

◆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오후 2시 ◆ **장소**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사회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국장

환영사	원 영 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장
후원자 인사	유 명 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심사보고	유 시 춘 EBS 이사장
수상자 소개 및 시상	대 상 김 중 미 작가 젊은지도자상 노 영 선 교수
특별공연	기차길 옆 작은 학교
리셉션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의 여성지도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가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을 받아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지도력을 발굴함으로써 한국여성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YWCA는 이 상을 통해 여성지도자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알림으로써 차세대 여성지도자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희망을 안기고자 한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환영사



원영희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회장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YWCA는 1922년 창립되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특별히 한국여성지도자상도 2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을 꾸준히 여성지도자들의 사회적 공헌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일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동역자 한국씨티은행의 후원과 함께, 전문적인 활동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앞장서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곳곳에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여성지도자상을 통해 마흔 여섯 분의 여성지도자들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많은 역대 수상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활동을 계속하시고, 지금도 한국여성지도자상의 권위와 의미를 몸소 보여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두 분의 여성지도자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대상 수상자이신 김중미 작가는 아동문학가인 동시에 지역운동가입니다. 작품을 통해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삶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젊은지도자상에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통해 학문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효과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한 노영선 서울대병원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혐오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를 위해 끊임없이 다가서고, 사회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신 두 분의 수상자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상식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여성지도력 발굴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주신 개인과 단체들, 수상자 심사와 선정을 위해 고심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년 동안 여성지도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한국씨티은행의 유명순 은행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국여성지도자상이 기업과 시민단체 간의 사회공헌 사업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후원자 인사



유 명 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2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 분들을 매해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여성 지도력의 발굴을 위해 함께 걸어온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상 후보 선정을 위해 힘써 주신 운영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두 분의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대상을 수상한 김중미 작가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아야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 보려고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작품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인 '기차길 옆 작은 학교'를 열어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노영선 교수님은 국내 최초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인 '달리는 중환자실'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 변화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 지도자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이 과감한 도전으로 세계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여성 지도력의 힘을 보여주시고, 헌신 해오신 역대 여성지도자상 수상자 분들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여성 리더의 불모지 시절에도 치열하게

도전하며,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셨기에 그 의미는 더욱 값지고 빛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랜 기간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며 여성 인재 양성 및 리더십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차츰 커지는 여성 리더십을 더욱 넓게 펼쳐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도 보살핀다면 여성 리더들의 영향력은 더욱 특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씨티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분들께 이 상이 더 큰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상식에 참석해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The 20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심사보고



유 시 춘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
EBS 이사장

한국YWCA는 1922년 설립되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여성의 인권 향상과 지도력 개발을 통해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십을 지지해온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2003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애써주신 여성지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 매년 이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의 심사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의 영예로운 수상자로 선정되신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오신 분께 드리는 대상, 미래 한국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분께 드리는 젊은지도자상으로 두 부문의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총 12명의 후보자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두 분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여성지도자상이 20주년을 맞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훌륭한 여성지도력을 발굴해 온 한국여성지도자상의 권위와 명성에 부합하도록 해마다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상의

제정 취지를 살려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가장 중요하게 숙고하였습니다. 올해 수상하시는 두 분 모두 각 분야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더 나은 삶과 환자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올해 대상자인 김중미 작가님은 <팽이부리말 아이들> 등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이자 지역활동가로서 평생을 지역운동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 확산을 위해 기여하고,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지역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실천적인 삶을 살고 계신 진정한 여성지도자입니다.

젊은지도자상의 노영선 교수님은 의학자로서 학교와 진료현장을 넘어서서 공공영역에서의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쉽 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온 진취적 지도력입니다.

오늘의 두 분 수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회를 맞은 한국여성지도자상을 통해 세상을 향한 YWCA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앞으로도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수상자 소개 | 대상 ◆



김 중 미
작가

1963년생

학 력

20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 학사

주요 작품

- 2022 장편소설 <너를 위한 증언>
- 2021 장편소설 <결에 있다는 것>
- 2000 어린이동화 <괘이부리말 아이들>

수 상

- 2022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한국후보선정
- 2020 IBBY 올해의 책 한국대표작 선정 '꽃섬고양이'
- 2000 창작과비평사 주관 제4회 좋은 어린이책 창작부문 대상

선정사유

김중미님은 아동문학가인 동시에 지역운동가로서 작가의 입장을 작품에 반영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지역운동에 대한 이해 및 가치 확산에 기여했으며,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00년도에 인천 동구 만석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괘이부리말 아이들>을 펴냈으며, 이 소설은 그해 좋은 어린이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천의 '괘이부리말'을 배경으로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린 소설이다. 김중미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은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김중미 작가는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청소년기까지 동두천에서 지내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인천 지역 활동과 인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병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을 만나고 빈부 격차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고민은 심화되었고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에서 공부방을 열고 지역의 노동자와 도시빈민, 청년들이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왔고, 가난한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곁을 지키는 '기차길 옆 작은 학교'의 큰이모이자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이제는 공부방에서 함께한 아이들이 자라 다시 공부방에 돌아와 또 다른 아이들의 세상을 밝혀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되어 그들의 아이가 공부방에서 엄마, 아빠와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도 있게 되었다.

2001년부터 강화도 양도면으로 귀농해 '기차길 옆 작은 학교'의 농촌공동체를 꾸려가며 그곳에서도 중고생을 위한 공부방을 열고 있다. 작가는 강화도와 만석동을 오가며 여전히 공부방 큰이모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 활동과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을 통해 여성, 인권, 노동, 성평등 등 차별과 혐오 속에서 연대하며 가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수상자 소개 | 젊은지도자상 ◆



노영선

교수

1979년생

학 력

- 2014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역학)박사
- 2009 강원대학교 대학원 의학(응급의학)석사
- 200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경 력

- 2020-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상부교수
- 2016-2020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부교수
- 2014-2016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조교수
- 2014-201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공의(예방의학)
- 2011-2014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의, 전공의(응급의학)

선정사유

노영선님은 국내 첫 '달리는 중환자실' 서울중중환자공공이송센터(SMICU: 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를 이끌어내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서울대 의대 재학시절 2년간 학생회장을 지내며 의학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문제 등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 예방의학과 응급의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학 시절 노숙인들을 진료하는 임시진료소에서 꾸준히 봉사하며, 주변을 돕는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경험하였고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자 노력했다.

노영선님이 이끌어낸 '달리는 중환자실'은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30여 가지의 의료장비가 그대로 구비된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전국에 단 2대가 존재한다. 2016년 첫 운영을 시작해 2021년까지 5,000여 명의 위독 중환자를 이송했으며,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 중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한 주역이 '달리는 중환자실'이었다. '달리는 중환자실' 시설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의학자로서의 본연의 역할 외에도 연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직접 쓴 논문으로 세상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여 살아가고 있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한국여성지도자상 제정 취지 ◆

한국여성지도자상은 1922년 창립 이래 한국의 여성지도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YWCA가 한국YWCA 지도력의 기둥인 박에스더 선생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여성리더십의 가능성과 능력을 지지해온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2003년 제정하였다.

이 시대는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여성의 참여와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지도력이 효율성과 생산성에 비중을 두었다면 이제는 여성이 지닌 특성인 전문지식, 창조성, 감수성, 통합적 사고, 세계적 안목의 지도력이 요구된다.

한국 여성들은 교육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와 정부와 기업의 주요한 의사 결정 지위에 진출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물론 아직 사회 곳곳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 능력을 가진 여성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여성지도력의 이상형을 정립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지도력과 업적을 인정하고 알림으로써 사회인식을 증진시키며, 다음 세대 여성지도자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고자 한다.

• 시상분야

- 대상** :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 젊은지도자상** :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만 5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성
- 특별상** : 문화다양성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여성 혹은 단체

◆ 한국여성지도자상 상패 ◆



한국여성지도자상 상패는 윤호섭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가 디자인하였다.
두 개의 청동철판을 이어 상생과 조화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공예작품으로 권위 있는 여성지도자상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 ◆

원영희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회장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송기영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양동수	소셜디벨로퍼 그룹 더함 대표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엄경식	한국씨티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 본부장
유시춘	EBS 이사장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이행자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

◆ 운영과정 보고 ◆

2022년 1월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구성
2022년 6월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지침 및 시상요강 확정
2022년 8월~9월	여성 및 시민단체, 사회 각 분야별 단체, 언론사 및 국회의원, 교육기관 등 후보자 추천의뢰 시상요강 발송
2022년 9월	후보자 추천접수 마감
2022년 10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작업 및 투표 과정을 통해 대상 김중미 님, 젊은지도자상 노영선 님 선정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역대수상자와 수상소감 ◆

2003년 제1회

직책은 수상당시 직책임.

대상



박 동 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나에게 보상의 차원을 넘어 보다 더 큰 성취로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통찰력과 투명성,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재능과 적성을 발휘해 전문분야를 키워나가도록 하며, 스스로 즐겁게 일함으로써 주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이다.

젊은지도자상



김 기 혜

수선화의 집 원장

내가 받은 데나리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다. 가끔 친구들이 너 아직도 그런 일하고 있느냐, 그렇게 힘든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의아해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은사를 감사히 생각한다.

2004년 제2회

대상



정 광 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지도자의 자질, 진실한 일에 대해 두려움 없이 수행할 용기, 지도자로서의 유연성과 포용성, 영향력, 그리고 영광과 상금을 어떻게 사회에 되돌릴 수 있는가를 자문자답한다.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면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행동계획의 체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지도자상



한 비 야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지도자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개척정신, 언행일치이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내 피를 끓게 하는 긴급구호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자 한다. 지금 가는 길,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2005년 제3회

대상



장 명 수

한국일보 이사

'나는 여자이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여자들 중의 하나다' 라는 사실이 새삼 기쁘다. 아직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극심한 차별 속에 살고 있지만, 여성의 지위는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이 상은 이 나라 여자들의 소중한 자산 목욕이고 공동이력서다.

젊은지도자상



김 성 주

성주그룹 대표

한국의 미래는 우리 여성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지식노동자로 업그레이드되고 전 세계 각 영역에 뛰어나가 프론티어로서 글로벌 지도자 역할을 할 때에 보장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작은 다리로서 한국의 새로운 글로벌 역사를 쓰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2006년 제4회

대상



윤 정 옥

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낸다는 비난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어려웠지만 다시는 그런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상은 정신대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내가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지도자상



김 영 미

분쟁지역전문 프리랜서PD

지구상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이다. 특히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 힘겹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참 많은 분들이 여성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과분한 상을 받아 속스럽지만 하다.

2007년 제5회

대상



조 화 순

전 달월교회 목사

나는 예수가 처음으로 여성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소외당하고 가진 것 없는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말한 분이다. 예수 닮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다. 그래서 나도 당당하게 살았다. 내가 만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도 아직도 복직운동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

젊은지도자상



방 귀 희

방송작가, 숭례문학 발행인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를 보고 내가 거북이같다는 생각을 했다.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인 '여성 더하기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 곱하기 장애인'이었다. 이 상은 거북이인 나에게 날아온 승전보와 같다.

2008년 제6회

대상



이 인 복

숙명여대 명예교수, 나사렛성가회 이사장

이 상은 상이 아니라 의무이고,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살면서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념을 굳건하게 서원하라는 뜻으로 가슴에 새기겠다. 나는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갈 따름이다. 멀리 산정을 바라보며 숨차하는 나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주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젊은지도자상



이 소 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운 우주에 있다 보니 지구에서 공짜로 받은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다. 지구로 돌아오는 데 과연 내가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했다.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9년 제7회

대상



황 연 대

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회장

상은 명예가 아니라 명예라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또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한다. 숙제를 안고서 부담감도 있지만 YWCA한국여성지도자상에 황연대라는 이름 세 글자로 누를 끼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젊은지도자상



임 오 경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초보자에게 너무나 큰 상을 주었다. 여자로 태어난 걸 원망하며 스포츠를 했다. 그러나 이 순간 여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어 정말 감사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다.

특별상



말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내가 무슨 조건으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The 20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2010년 제8회



대상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여성 운동의 목표는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여성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 빈곤 퇴치 운동을 벌이는 등 계속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젊은지도자상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 저자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훌륭한 여성지도자인 나의 어머니께 상을 바친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



특별상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한국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오늘날 내게 큰 영향을 끼쳤다. 한미 양국이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참여 확대, 특히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2011년 제9회



대상

주선애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는데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받는 귀한 상을 받게 되니 황송하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더 많은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특히 통일 준비를 위한 일에 여성들이 깨어서 앞장서기를 바란다.



젊은지도자상

김문정
뮤지컬 음악감독

함께 일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멀리 갈 수 있으며, 일이 값진 것도 사람 때문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며 뮤지컬 감독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특별상

최영아
다시서기의원 원장

노숙인 진료를 하면서 내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았는데 상까지 받게 되었다. 부족한 나를 만나준 환자분들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다. 그분들과 동고동락하며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2012년 제10회



대상

이효재
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전 이화여대 교수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YWCA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여성지도자를 양성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90%가 비정규직이다. YWCA가 앞으로도 여성운동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젊은지도자상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이 상을 부끄러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명으로 알고 살아가겠다.



특별상

박선영
국회의원

이런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가려지고 버려진 곳에서 눈물짓는 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할 일이 많음을 느낀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3년 제11회



대상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부족한 나에게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에서 귀한 상을 주신 데에 대해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YWCA는 어느 여성단체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일 먼저 여성운동을 전개했으며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이러한 YWCA에서 일한 것을 무한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YWCA가 앞으로 더욱더 여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젊은지도자상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별로 한 일이 없기에, 이 상은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과 대한민국에 왔지만 문화적·경제적 차이로 힘들어하는 북한이탈주민여성 모두에게 주시는 용기와 희망의 상이라고 생각한다. 탈북 여성들이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고 동포들이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통해 더 열심히 북한여성과 탈북여성의 인권과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상

강경화
UN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

한국 발전사의 중심축에 있는 한국YWCA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게는 여성의 문제가 한결같은 과제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길잡이가 되어 준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잘 손질된 외양이 아니라, 내실에 기반한 자신감과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사명감에서 나오는 겸손함의 조화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받는 특별상의 의미가 내 개인의 영광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제12회



대상

김영란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전 대법관

한국YWCA로부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남성 중심적인 법조 사회에서 여자라서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후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되면서 여성판사가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데까지 사고의 지평을 넓혔다. 오늘날 젠더관점이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 나아가 닫힌 세계에 이견 제기자로 확고하게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제안한 김영란법은 그런 면에서 젠더관점을 발전시킨 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여성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YWCA와 여성지도자 활동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젊은지도자상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과분하고 송구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이 너무 많이 든다. 탈핵운동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다. 활동가들과 함께 치열하게 일했지만 대중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될 때는 매우 힘들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다가 YWCA 회원들도 많이 만났고 엄마들과 여성도 많이 만났다. 많은 여성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탈핵운동이 외롭지 않다. 이 상은 개인의 상이 아니라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같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책임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15년 제13회



대상

김수지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

제 삶의 결실결실에 대한 과분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때때로 간호현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간호 자체가 큰 의미와 보람을 주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고백할 말이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지구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섬김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나누고 싶다.



젊은지도자상

김정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사무총장

여성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역사가 깊은 YWCA에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성 농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 국민이 더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포기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받는 상이 아니라 150만 명의 여성 농민들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받겠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The 20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2016년 제14회



대상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YWCA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의료 못지않게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느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훌륭한 상을 주시니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남은 생을 인재양성과 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젊은지도자상

신애라
벨런트

젊은지도자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또한 기대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이들을 예배하는 것이 내 재능이라는 것을 알았다. 소명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특별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역사의 문제다. 이 상을 통해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 일본이 우리 명예를 회복해주고, 사과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겠다.

2017년 제15회



대상

최영애
여성인권옹호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여성운동을 확장해 온 YWCA에서 주시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반(反) 성폭력운동에 몸담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여기고, 앞으로 여성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연대가 더욱 확장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젊은지도자상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이사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공정무역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응원이나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여기겠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환경파괴와 가난의 악순환이 여성에게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제3세계 빈곤 여성들의 경제자립을 위해 공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겠다.

2018년 제16회



대상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YWCA에서 여성 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성들의 하나 된 목소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이다.



젊은지도자상

서지현
검사

MeToo 운동은 '공격적 폭로'가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힘겹게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공감해주는 목소리에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받아, 힘을 내어 서 있다. 작은 소망에서 시작한 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제17회



대상

조형
(재)한국여성재단 고문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배운 것은, 성별이나 계층, 연령, 인종, 민족, 국가 등 그런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정의로운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폭력주의까지 포함하는 평화, 다음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배려와 화합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상의 영예를 우리 벗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젊은지도자상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여성운동을 세상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약자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 고통을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만들어야 지금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다. 깨어져서 열린 마음의 힘으로 더 평등한 세상, 누구나 민주주의가 약속하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여성리더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2020년 제18회



대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전 세계와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마음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며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담당자들과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는 국민 한분 한분께 감사하다. 이번 수상이 중증보건의료와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차세대 여성지도자와 많은 활동가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



젊은지도자상

임선애
영화감독

여성 차별과 노인 편견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관심을 높지 않을 때 소외된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상

추적단 불꽃

2020년을 끈기, 기록, 연대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다. YWCA에서 전 세계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와 함께 걸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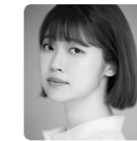
2021년 제19회



대상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어머니도 인정하지 않았던 꿈을 이루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로 가는 길을 내주시고 바다로 가는 길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길에서 행복과 치유를 경험한 분들을 만났고, 길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셨다. 자원봉사자들의 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14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과 치유를 낳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여정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젊은지도자상

김초엽
소설가

작가들에게 주는 문학상이라는 것은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젊은지도자상은 작품을 통해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문학상을 받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작품을 통해 차별이 아닌 다양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노력이 작가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사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



특별상

김연경
배구선수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미있는 상을 받아 정말 영광이고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지켜온 YWCA 목적과 운동방식을 성찰하고,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정의·평화·생명의 세상 건설을 위한 기독교민운동의 주체로서 다시 담대히 일어서고자 한다.

◆ Y -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

우리는 청년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한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에서 자유로우며 수평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건설한다.

◆ W - 여성리더십, 성평등, 차별배제, 다양성

우리는 여성이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한다.
차별과 배제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와 갈등을 깨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호이해와 공존의 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룬다.

◆ C - 기후정의, 생명, 돌봄, 살림, 평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돌본다.
창조질서의 회복과 기후 정의를 이루는 생활과 제도를 만들고 생명살림을 실천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다음세대의 도움 요청에 적극 응답하고 사회의 구성원과 대화하며 포용한다.
갈등과 분단, 전쟁과 폭력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담대히 전진하며 사회적 영성과 평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간다.

◆ A - 연대, 주체성, 지역성

우리는 회원공동체다. YWCA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변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우리의 현장은 지역이다.
기독교민운동단체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강화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다.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다.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꺼이 담당한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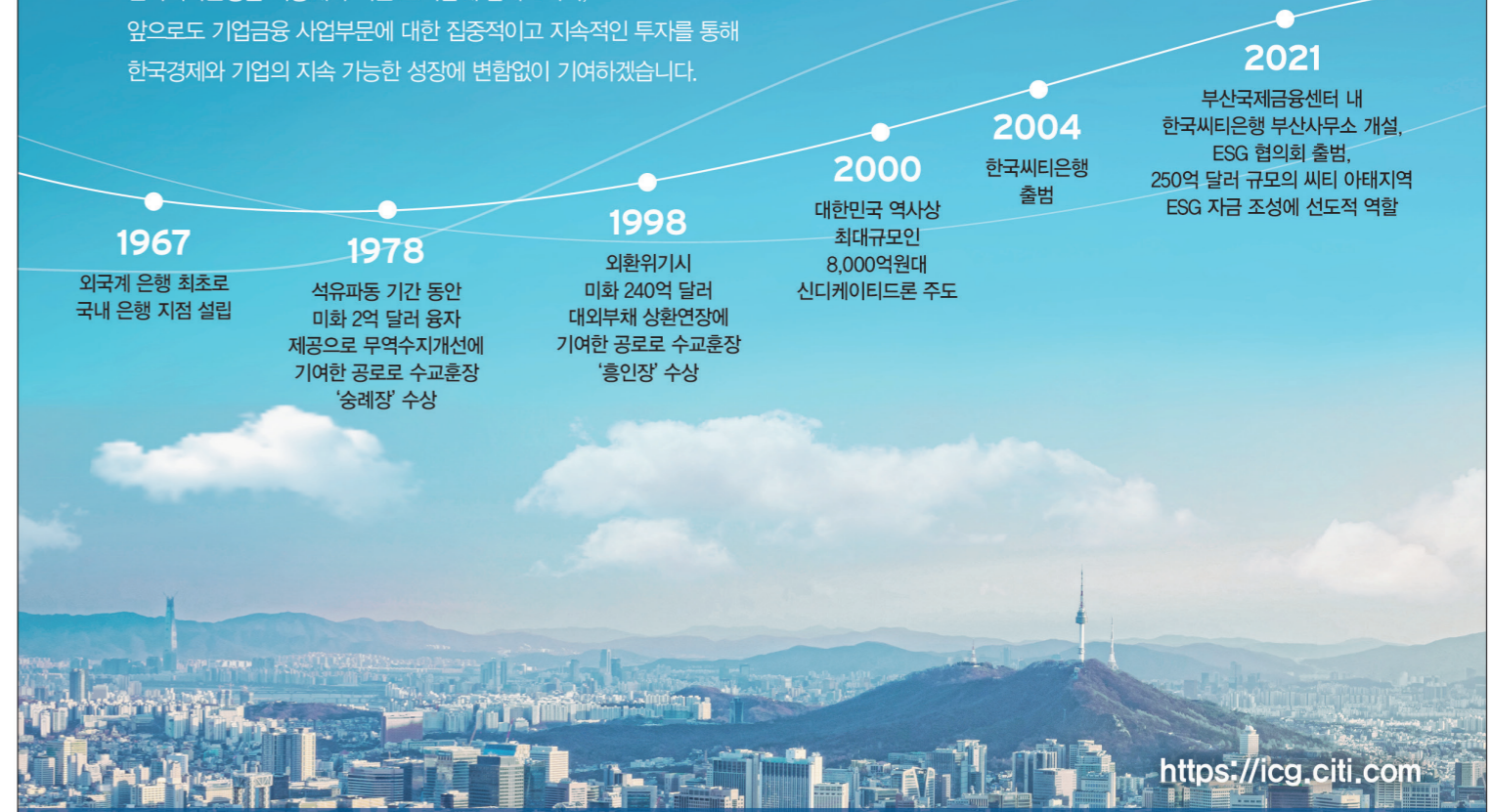
씨티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강의 기적과 함께 해 왔습니다.

씨티는 1967년 한국에 진출해 기업금융 영업을 시작한 이래 세계경제가 오일쇼크, IMF, 금융위기와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한국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며 지난 54년간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대한민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변함없이 기여하겠습니다.



<https://icg.citi.com>



한국씨티은행 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

- 1993: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제정
- 1998: 기업 최초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 체결 및 희망의 집짓기 사업 후원
- 2001: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 후원
- 2003: 한국여성지도자상 제정
- 2006: 청소년 금융교실 '핑크머니(Think Money)' 및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후원
- 2017: 한국사회적기업상 제정
- 2018: WWF(세계자연기금)와 파트너십 체결 및 기후행동 '내일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 후원

준법감시인 심의필 2110-06-238(2021.10.13)